

# 자신 속의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야 소원 이루어져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항상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그 래야 마음의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 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가 지고 움직여야 되고, 또한 시간시간이 여 러분들이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피가 점점 변하지,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지 않으면 그 피가 변할 수 가 없는 거죠? 항상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그러한 마음의 싸움을 해야 여러분 들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 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통 제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가 없고, 또한 자기 자신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그리 한 생활을 습관적으로 가져야, 마음의 초 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을 가지 고 맞춰야지, 사이클을 맞추기 시작을 해 야 돼요. 마음의 사이클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사 이클이 맞아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 들어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을 점령할 수가 있는고로 하나님의 지배 를 받기 시작하려면 마음의 싸움을 시작 해야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마귀를 이기게 돼**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마귀는 지게 되어 있고, 마귀는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의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만날 승리제단 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승리제단 나온 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싸움 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 어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 의식 되고야 마는 것이지,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 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대여 여러분들이 무슨 일 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클과 맞추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만 그제서부터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옵시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 를 이기면 그대로 마귀와 싸움 적마다 그 전장을 할 적마다 하나님이 이기기만 이 기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져라**  
 그리고 그대여 여러분들 마음의 위치가 항 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가 나라는 의식의 마귀 편에 서면 마귀가 되어 결단고 지옥에 갈 수밖 에 없는 것이옵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할까, 어 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가 까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점점 늘어야 기쁘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 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 게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겠다 는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 음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 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승리제단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 지구 땅위에는 하나님의 집이 승리 제단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승리제 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애 를 써야 되고 또한 세계적으로 승리제단



구세주 조희성님

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려면 간부들은 그 대로 헌금이라든지 승리제단의 물건이 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잘못 되면 고쳐서 쓰고, 승리제단의 물건에 대해서 손실이 오지 않도록 틈만 있으면 손질을 하고, 틈 만 있으면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승리제단을 더럽게 하고, 승리제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것 역시 마귀 노름을 하는 거죠?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말단 신자라 할지라도 역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도 손색이 없도록 누가 봐도 깨끗하다고 하고, 누가 와서 봐도 참 제단이 너무나 무 아답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하겠죠? 그대로 페인트를 칠 한다든지 기둥 같은 걸 전부 손질해서, 현 재 그 기둥이 여러분들 보드시피 벽들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전부 손질을 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돈을 조 급씩 조금씩 거뒀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승리제단은 참 멋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 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 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 은혜 못 받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서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서 은혜가 받아지고 은혜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 고서는 자기의 일만, 자기 이익만 찾아서 생활하는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 어요. 승리제단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 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꾸 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것 다 알고 있어 요. 사람의 몸이 신이고, 사람의 피가 사 람의 영이고, 피가 사람의 생명이고, 사 람의 피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

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핏 속에는 마귀 피도 있고 하나님의 피도 있 는고로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병존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신이 마귀한 데 져가지고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으 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강해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입 에서는 찬송가가 떠나갈 일이 없고, 항상 그 입에서는 기도하는 법이 떨어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옥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가르 쳐 줬죠? 그 기도문이 바로, “무량대수 마 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 서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 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겨져서 성령의 멧 들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행불 로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이와 같은 기도문을 길에 걸어 다니면 서도 기도문을 외우고, 제단에 앉아서도 기도문을 외우고, 제단에 출석할 때에 최 소한도 한 시간, 삼십 분 이렇게 먼저 와 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기성교회들은 잡담을 너절너절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마귀 죽이는 기도를 하 죠? 마귀 죽이는 기도가 기도지, 자기의 생활하는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 어요. 승리제단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 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꾸 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죠?

**마귀만 죽으면 무엇이든 원대로 돼**  
 하나님은 영인고로 마음 자체가 무엇 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지금 이루 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그 사정을 낱낱 이 알고 있죠? 그것 말할 필요가 없어. 뭘 해 달라, 뭘 이루어 달라, 병 낫게 해 달라,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마귀만 죽 으면 병이 낫고, 마귀만 죽으면 사업이 잘 되고, 마귀만 죽으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 죽이는 기 도가 가장 상당되는 기도이고, 마귀 죽이 는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아시겠 어요. 이 세상이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기도법을 몰라요. 이 세상 종교들이 기도법을 몰라요. 마귀를 죽이는 것이 기 도이지, 주절주절 대면서 자기 요구사항 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강해져야 소원이 이루어져**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 은 생명이 죽는 거죠? 생명이 사람의 영 이요,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 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하 나님의 영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 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된 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고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지만 내 몸속에 하 나님이 계시는고로 항상 하나님이 내 마 음을 알게, 모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해져야 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지, 하나님이 약해져가지고 만날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는데 능력 이 없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암만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해 봐야 안 돼. 능력 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감자가 되어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2000년 11월 1일자 말씀 중에서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2장 이삭의 하나님》 (13) 마할라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키다

### (13) 마할라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키다

에서는 ‘형이 아우를 삼킬 것이라’라는 축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자신의 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에 대한 미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분노를 식이지 못한 채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마할라에게 “동생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편 에서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마할라트는 형제간의 살인만큼은 꼭 막아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할라트는 남편 에서와 이복 사촌지간이기에 평소 오라 버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오라버님, 오라버님의 억울한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내님이 살아가 시는데 어찌 동생 야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라버님께서 수천 리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백부 이스마엘의 집에 찾아와서 그의 신전 카바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동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나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던 일을 잊으셨나요?”

에서는 아내의 진심어린 말에 당장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야곱이 눈에 뵈지 않자 다 이를 갖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쯤에 당장 이놈의 야곱을 요절을 내고 말 거야.” 하고 잔포대하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마할라트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시어머니 리브가에게 달려가 형제간의 피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리브가는 신앙심이 깊고 현명한 며느리 마할라트의 조언을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중 난 자가 먼저 난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차남 야곱이 장자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어떤 수난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리브가 50세 때에 태몽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128세의 리브가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리반의 집으로 잠깐 피하게 하라. 다만 이번 그의 여로에는 아비의 중들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올해 일흔 일곱 살의 야곱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인즉,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그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어서 그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2000리나 되는 먼 곳에 있는 하란까지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미 입장에서 몹시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리브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지 못하여 다투는 일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떼어놓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을 나의 오라버니 리반의 집으로 보내면 어떻까요? 또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다 보면 눈에 맞는 여인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먼 길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듭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여인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아내 리브가의 말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야곱은 본래 천성이 여자를 몰라서 그런지 77세가 되도록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로 이리 아들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아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아들 탓만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먼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거리쯤은 각오해야지 않겠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오. 당신을 나의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2000리나 되는 먼 길을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보내지 않았소. 또 아이들 에서가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2500리나 되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구하여 오지 않았소.” 하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하여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상의한 결과,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하기를, “하란에 계시는 나의 오라버니 리반에게 피신하여라. 형이 너를 죽이면 형도

여호와로부터 외면당할 터인데 어찌 내가 하루에 너희 두 형제를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오늘 형 에서가 자신의 처 유딧을 보기 위해 헷족속 브에리 땅으로 갔으니 속히 채비를 꾸려 준비해두

었다가 내일 아침 해뜨기 전에 일찍 떠나도록 하여라.”하고 재촉하였습니다. 에서의 처 유딧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에서는 유딧을 보기 위해 가끔 처갓집으로 가서 사흘 내지 길게는 일주일간 머물다가 오곤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딸을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 이삭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르기를, “제가 헷족속의 딸을 떠느리코 보아 내 삶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였거늘, 만약 차남 야곱마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헷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마할라이 남편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단단히 일렀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곧장 ‘바단아람’에 계시는 네 외할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외삼촌 리반의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하라.”(다음호에 계속)\* 안헬라

1 바단아람: ‘아람의 들’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지방에 있는 하란의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유브라테스 강과 하부르 강이 합류하는 곳으로부터 상류 쪽에 위치합니다.